https://doi.org/10.18856/jpn.2026.32.3.002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나타난 회귀 구조의 '위안의 장치' 비틀기

김윤희*

1. 서론
2. '정당한 협력자'와 '부당한 악인'이라는 선악 구도의 해체
3. '일반인' 주인공의 1인칭 서술로 인한 '영웅'과의 거리
4. 낙관주의적 성공 서사를 경계하는 재난-밖의-재난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나타난 회귀 구조를 움베르토 에코의 '위안의 장치'를 통해 분석하며 회귀물 장르관습의 변형이 '이타심과 연대'라는 작품의 주제의식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회귀 서사는 '뚜렷한 선악 구도', '능력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 '성공 이외를 보여주지 않는 닫힌 결말'이라는 전형성을 축적해왔다. 이는 독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동시대성과 쌍방향성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의 서사에 치우쳐져 그 속의 모순점과 불공정함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움베르토 에코는 대중 문학이 가진 '위안'의 성격에 관해 그것이 제시하는 현실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오히려 모순과 불공정을 악화할 수도 있는 선악의 이분법, 영웅의 등장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생

www.kci.go.kr

반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초반부에는 그러한 장르관습을 보여 독자들에게 친숙한 서사를 보여주다가 점차 그 전형성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그 '위안'을 의심하게끔 만든다. 먼저 인물들 간의 뚜렷한 선악 구도를 해체하면서 작품은 인물들을 배치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와 정당성 대신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물들의 관계망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끝까지 '일반인'으로 있는 주인공의 시선은 독자로 하여금 한 인물의 초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 사이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연대를 고민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재난의 끝을 선언하지 않는 재난-이후의 서사는 회귀라는 손쉬운 방식을 통해 사건을 봉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경계하게 만든다. 대신 작품은 작중 문제시되었던 차별과 불평등을 지금-여기의 문제로서 폭넓게 고민하며 작품 안팎의 재난 상황과 주제의식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웹소설의 특징인 독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장르관습을 전략적으로 비틀고 이를 '이타심과 연대'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는 많은 회귀 구조가 가졌다고 지적된 대리만족의 서사, 그리고 그 자아도취적이며 이기주의적이라는 특성 외에도 웹소설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분석한 이 글은 웹소설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주제어: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회귀물, 타임 루프, 위안의 장치, 움베르토 에코, 대중 문학, 장르관습)

www.kci.go.kr

1. 서론

이 연구는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회귀 구조가 가진 장르관습의 변형을 분석하고, 이것이 웹소설 독자의 독서 체험과 작중 메시지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연산호 작가가 '문피아' 사이트에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연재한 웹소설이다.[1] 이 작품은 21세기 중후반에 더 이상의 무의미한 우주 개발을 포기하고 해저 이주 계획을 세운 인류가 심해 3000m에 건설한 해저 기지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박무현은 기지의 최심(深)층에 위치한 치과의 치과의사로서 해저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침수 상황과 맞닥뜨린다. 설상가상으로 침수된 해저 기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 무한교는 무장 테러조직을 투입하여 박무현의 생존 확률을 시시각각 낮춘다. 이러한 서사는 자칫 평범한 탈출물이자 SF 재난물, 혹은 SF 디스토피아로 보임에도,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가 가지는 특수성은 회귀 장르의 관습이 변형됨에 따라 기존의 회귀물 웹소설을 수용했던 방식이 재고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주인공 박무현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결코 하나의 길로 수렴하지는 않는 회귀(타임 루프)를 경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박무현은 원치 않는 회귀를 몇 차례 반복하며 계속해서 해저 기지 침수를 경험하지만, 회귀의 회차 별로 상황의 전개와 탈출 루트, 그리고 함께하는 인원은 각각 상이하다. 박무현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소설은 따라서 인물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는 모습을 비추고, 이는 '이타심(선의)과 연대는 어

1) 해당 작품은 2022년 한국SF어워드 웹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한국 SF어워드 2022 - 웹소설 부문 수상작 및 심사평〉, 『SF어워드』, 2022.10.05., https://sfaward.kr/77. (접속일: 2026.08.09.))

www.kci.go.kr

떻게 가능한가'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형성한다. 관련하여 작품의 시공간성을 분석한 정윤영은 회귀 속에서 재고되는 현실 인식을 '실패한 유토피아'적 현재와 마주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2] 이에 따르면 심해 기지라는 공간은 포스트모던적 위기에 빠진 현대 사회의 알레고리이며, 그곳에서 박무현이 경험하는 해저 기지의 상황과 인물들 각각의 다면성은 현실 사회의 인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이 논문은 작품이 변형한 회귀 구조가 '현대 사회 인류 종(種)의 성찰'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독특한 회귀 구조는 그것이 웹소설의 장르관습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다 구조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요한다. 이 작품이 회귀물의 전형성에서 벗어남을 구조화한 엄채민은 반복되지만 결코 주인공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박무현의 회귀가 개인의 실존적 고뇌를 깊이 있게 다루도록 돕는 장치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성장은 인간 전체에 대한 윤리적 사고로 확장되어 '선의의 순환', '공동체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다.[3]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장르관습(의 변형)은 작품 속에서 주제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며 이 글에서는 웹소설 장르관습을 보다 독자와의 관계 위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전형적 회귀 구조에서 독자의 호응을 얻으며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뚜렷한 선악 구도', '능력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 '성공 이외를 보여주지 않는 닫힌 결말'의 요소는 이 작품 속에서 의도적으로 변형된다. 다시 말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각 회귀

2) 정윤영,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시공간성 연구 : 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3) 엄채민,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자기 재서사화 과정과 자기 구원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www.kci.go.kr

회차의 플롯, 인물들의 설정, 그리고 회귀물의 전형성을 실험적으로 재배치하며 기존에 웹소설의 독자가 기대했던 클리셰-회귀를 통해 주인공이 미래를 바꿔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되는 닫힌 결말-를 배반한다.

현재 한국 웹소설 시장에서 회귀물은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소재 중 하나인 만큼 여러 장르와 서사를 아우르며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선행연구들은 상업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회귀물의 장르관습에 주목해왔다. 회귀물은 이전 삶에 대한 회귀자의 '후회'를 주된 정동으로 가지며, 그러한 '후회' 이후의 삶을 통해 '주어진 사회 질서 내에서 실패하지 않는 주인공'을 보여준다.[4] 현대 사회의 불공정함은 소외와 상실이라는 시대적 키워드를 만들었고, 이는 웹소설 시장에서 '죽음' 뒤의 시공이 펼쳐지는 배경이 되었다.[5] 특히나 웹소설은 독자와의 즉각적 연결을 주요 특성으로 갖기에 그들의 욕구가 작품 내에서 수용되거나 해소되는 방식은 점차 장르의 전형성으로 굳어져 갔다. 이에 관해 박수미는 웹소설이 여러 모티프와 이야기, 장르 문법을 섞는 신선함을 보임에도 결국 선악의 흑백논리 속에서 '초월적 능력을 가지며 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갖춘 매력적인 주인공'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예측 가능한 보수성을 보이곤 한다고 설명한다.[6] 이러한 전형적 회귀물은 주인공이 가볍고 즉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독자의 대리만족 욕망을 충족한다는 최종 목적을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그러나 이것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예상 가능한 대리만족의 서사'가 현실 사회 속 문제의 복잡성과 다면성, 연속성마저 단순화할 수 있다

4)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83쪽, 294쪽.
5)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제4권 2호, 미래학회, 2019, 167-169쪽.
6) 박수미, 「웹소설 서사의 파격성과 보수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49-54쪽.

www.kci.go.kr

는 점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대중 문학이 가진 '위안'의 성격이 독자에게 익숙한 사회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 그 현실에 잠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대중 소설이 가진 '위안의 장치'는 독자가 예상 가능한 사건의 해결 방식을 확인시키고 허구의 보상을 담보해줌으로써 독자 대신 문제를 해결한다.[7]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과 논쟁하는 영웅적 인물이 아닌, 그들이 평온하게 동일시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대중 문학적 영웅'을 보여주는 것이다.[8] 여기서 '대중 문학적 영웅'은 소설 내부의 인물이면서, 독자가 역사적으로 축적한 '문제 해결의 손쉬운 방법' 자체이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영웅이 작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의 문제도 선한 영웅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 실제로 갈등이 있을 시 힘 있는 인물이 나타나 계급과 국적, 집단 등의 가시적 기준으로 사회를 분할하여 대중의 편을 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용되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서사 전개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익숙한 도식은 독자의 세계관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기에 사회적 모순을 철저히 감추고, 이에 따라 독자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은 소거된다.[9] 즉 선악의 뚜렷한 구분, 민중/대중을 구원할 영웅의 등장, 권선징악으로 봉합되는 결말은 전부 '위안'이자 '기대 범위 내에 있는 서사'로서 그 밖의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할 방법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

'회빙환(회귀, 빙의, 환생)'의 서사가 현실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나타났음에도 주인공이 보이는 불공정과 불합리는 손쉽게 간과된다는 지적,[10]

7) 움베르토 에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28쪽.
8) 위의 책, 110쪽.
9) 위의 책, 130쪽.
10)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4, 54쪽.

www.kci.go.kr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회귀물이 주인공의 성공을 돕는 다수의 돌봄 노동자들을 비가시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계급주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지적[11]은 장르와 서사를 막론하고 전형적 회귀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안'의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낸다.[12] 물론 섣불리 모든 웹소설이 선악의 장치를 남발하고 독자들의 예상을 방치함으로써 그 속에 새로운 부조리와 이기주의를 내포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인공이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을 돕고 선의와 이타심의 가치를 탐색하는 웹소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품이 대리만족이라는 중간 목표를 틈틈이 달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에코가 '위안의 장치'에 대한 경계로써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과 맞닿는다. 현실 사회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발생할 시, (특히 회귀를 통한) 대리만족의 경험은 지금-여기의 수많은 맥락을 다소 축소할 우려가 있다.

반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이타심(선의)과 연대의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의식을 위해 위와 같은 회귀물[13]의 장르관습을 변형한다. 초반부에 작품은 회귀물의 '위안'적 특성 일부를 따라가는 듯하며 독자에게 친밀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회귀가 거듭될수록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11)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33쪽.

12) 또한 이러한 서사가 독서 체험의 단편적 재미와 위안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이유는 대중 문학이 형성해 나가는 가치에 있다. 대중 문학의 지적, 도덕적 가치는 그것이 대중의 헤게모니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나온다.(박상진, 「대중 문학의 열린 지평」, 안토니오 그람시, 『대중 문학론』, 박상진 역, 책세상, 2025, 205쪽.)

13)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반복되는 회귀' 구조를 보이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회귀물과 루프물의 엄격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학술적인 용어로서 훨씬 많이 분석된 것은 회귀물이기에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타임 루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작품을 회귀물로 명명했다. 이에 이 글에서도 이 작품을 '반복되는 회귀(타임 루프)'를 담은 회귀물로 보고자 한다.

www.kci.go.kr

되어〉는 인물들에 대한 절대적 선악의 잣대를 해체하고, 주인공의 정당성을 때때로 의심하게 만들어 독자의 대리만족을 어렵게 한다. 또한 결말에 도달해서도 사건(재난)이 종결된 닫힌 세계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작품은 주인공의 성공과 권선징악의 도구로 해결되지 않은 연속적인 현실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로써 작품은 독자의 위치를 '서사의 작동 방식을 알고 위안을 얻는 작품 밖의 감상자'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위안'의 틀에서 벗어난 회귀 구조는 기존의 전형적 회귀물이 비가시화하던 자아도취적 개인주의,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모순과 불평등, 차별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성찰의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이 글은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나타난 회귀 구조가 '위안의 장치'를 변형하여 독자의 현실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뚜렷한 선악 구도', '능력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 '성공 이외를 보여주지 않는 닫힌 결말'이라는 요소의 비틀기를 뒤이은 각 장에서 분석할 것이다.[14] 먼저 2장에서는 박무현의 반복되는 회귀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피며 그의 탈출을 돕는 협력자 집단과 그것을 방해하는 집단이 결코 선악의 절대적인 대립 구도로 굳어질 수 없음을 밝힐 것이다. 이렇듯 한 세계의 인물들이 복잡성을 띤다는 사실의 인지는 이야기의 최종 결말과 승자(생존자)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계를 단 하나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로 이분화하는 태도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어 3장에서 분석할 주인공의 비(非)전형성은 독자에게 한 중

14)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전체 421화를 17권(본편 16권과 외전 1권)으로 압축한 전자 단행본이다(2026년 8월에 수록된 특별 외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421화의 연재본과 8권 분량의 종이책이 있으나 세 선택지의 텍스트적 차이(원문의 변화)가 크지 않고, 또 작품이 변형한 '장르관습의 구조'가 독서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글인 만큼 장편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목적에는 전자 단행본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www.kci.go.kr

심인물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물의 시점을 제공하여 이타심과 연대의 가치가 위협되는 재난 상황을 함께 사유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이 과정에서는 전형적 회귀자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재고되는 한편, 재난 상황에서 이타심과 연대가 과연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무한교의 테러와 해저 기지 건설의 유사점을 살피며 거기에 내재한 낙관주의적 성공 서사의 상상력이 비판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작중에 나타난 두 가지 방법-해저개발, 그리고 무한교의 테러-은 결국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본질적인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작품은 주인공이 테러 상황에서 벗어난 결말에서도 세계를 완벽하게 봉합하지 않고, 재난-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사회의 문제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회귀 구조가 제시하는 작품 속의 재난은 지금-여기의 당면한 문제들과 맞닿고, '이분화나 예측이 불가능한' '초월적 영웅이 해결해주지 않는' 고민은 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잔존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가 회귀 구조의 변형을 통해 기존의 회귀물, 그리고 그 장르관습에 익숙한 독자의 예상에 반응하며 작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드러나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특성은 탈(脫)장르소설이나 탈(脫)대중문학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웹소설이 현실의 문제와 그 속을 살아가는 독자와 조응하며 꾸준히 재창조, 변형된 결과로서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드러낼 것이다.

2. '정당한 협력자'와 '부당한 악인'이라는 선악 구도의 해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치과의사 박무현이 태평양 해저 기지에

www.kci.go.kr

들어오기 위해 헬기와 배를 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침수가 시작되는 연재본 12화까지 총 12화(0화 포함)에 걸쳐서 박무현의 서술은 해저 기지의 구조나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치과 의사의 일상을 보여준다. 보통 웹소설이 초반부에 카타르시스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점을[15] 들 때 이 작품은 일부러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가 박무현이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때까지 끝없는 위험 요소와 갈등을 집어넣어 독자들의 대리만족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것이 꼭 웹소설의 장르관습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닌데, 그 첫 번째 죽음이 독자에게 '다음 삶(회귀)의 당위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회귀 이전의 삶에서 축적한 상실,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회귀의 정당화는 웹소설 독자에게 익숙한 회귀 모티프의 특성이다.[16] 즉, 박무현이 느낀 고통스러운 탈출 과정과 그 실패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61화까지의 기나긴 상실로 작동하며, 그에 따른 회복으로서 다음 삶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든다. 특히 이 작품은 61화까지 회귀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독자들은 더더욱 그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

회귀물에서 회복의 가장 전형적인 길은 악인에 대한 복수, 그리고 주인공의 최종적인 성공이다. 웹소설 서사는 불편한 질문을 제거하고 선악을 흑백으로 나눈 채 도덕성을 인정받은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특성을 강하게 갖기 때문이다.[17] 이러한 전형적인 회복의 서사를 기대한다

15) 유료 회차가 대부분인 웹소설 시장에서 주인공의 과거와 시련, 목적 실현까지의 기나긴 길은 독자들이 추가 구매를 하지 않는 이탈의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웹소설의 회귀 구조를 플랫폼과 연재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한 음성원과 장웅조의 글은 연구대상인 4편의 웹소설이 주인공의 카타르시스를 25화 이전부터 느낄 수 있거나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게끔 서술되었다는 점을 밝혔다.(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54쪽, 61쪽.)

16) 안상원, 앞의 글, 289-290쪽.

www.kci.go.kr

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가 회귀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예상되는 전개는 박무현이 '실패했던 기억'을 활용해 1회차에서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무한교를 해치우며 해수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게다가 1회차에서는 탈출 작전에 함께했던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 유금이가 전원 박무현을 돕는 한국인이었고, 탈출 도중 대치한 무한교의 사람들은 전원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외국인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1회차는 친숙함과 낯섦의 대조로써 암묵적으로 선악의 분할점을 구성하며, 그에 따른 '예상 가능한 권선징악'의 초석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질문이 제거'된 선악의 이분법과 회복의 서사는 불가능함이 점차 드러나는데, 이를 다음 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	중심 탈출 경로	탈출 동행 인원
1회차	청룡동[18] 엘리베이터(3층 도착) 〉 비밀계단(2층 도착) 〉 해상 케이블카(1층 도착 전 사고, 상어에 물려 사망)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 유금이
2회차	주작동 연구센터 〉 화물 엘리베이터(지상 도착 직전 무한교 신도의 총격으로 사망)	김가영, 유금이, 이지현
3회차	청룡동 엘리베이터(3층 도착) 〉 탈출정(수면을 3m 앞두고 탈출정의 문이 열려 사망)	강수정,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 유금이, 이지현, 투마나코, 헨리
4회차	(기억에 없는 회차,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익수로 사망)	
5회차	치과(박무현이 회귀자임이 밝혀져 무한교와 인질극) 〉 중앙 엘리베이터(탑승 후 총에 맞아 사망)	김가영, 김재희,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 정상현, 투마나코

17) 박수미, 앞의 글, 56쪽.

www.kci.go.kr

6회차	(기억에 없는 회차, 무한교 신도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 엔지니어 다팀의 총에 사망)	
7회차	(기억에 없는 회차, 스트레스로 인해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청룡동 숙소에 틀어박혀 익수로 사망)	
8회차	현무동 〉 잠수정(2층 도착) 〉 비밀계단(1층 도착) 〉 다이빙(지상 도착 실패) 〉 정원(1층 복귀, 무한교 신도와 대치 중 사망)	김재희, 리코,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 정상현
9회차	중앙 엘리베이터(지상층 도착 후 탈출)	김재희, 백애영

〈표1〉 박무현의 회귀 회차 및 탈출 경로, 탈출 인원 정리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무현이 회귀를 거듭해도 중심 탈출 경로와 함께하는 인원이 일치하는 회차는 한 번도 없다. 박무현이 다른 이들과 달리 죽음 이전을 기억한다는 이점을 갖는 건 전형적인 회귀물과 동일하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이들과 같은 경로를 따라 보다 성공적으로 탈출한다는 보상은 없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박무현이 기억하고 있는 회귀 이전의 일부 상황 설정은 다음 회차에서 동일하게 이어지지 않기에 박무현의 최종 탈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의 탈출 과정에서 많은 순간 박무현 자신보다도 주변인들의 태도나 행동이 눈에 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무현은 모든 갈등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며[19] 오히려 많은 순간 타인의 도움을 받는 관찰자의 모습을 많이

18) 수심 3,000m 아래에 있는 해저 기지 4층은 중앙동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의 청룡동(한국, 러시아팀 제외 엔지니어 팀 숙소), 서쪽의 백호동(한국, 러시아 엔지니어 팀 및 특수직종 종사자 숙소), 남쪽의 주작동(연구원 숙소), 북쪽의 현무동(재굴팀 숙소)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 수심 1,000m에 위치한 해저 기지 3층, 수심 200m에 위치한 2층, 수심 50m에 위치한 1층, 그리고 해수면의 인공섬 대한도까지는 주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19) 정윤영, 앞의 글, 473쪽. 이 글에서는 박무현이 갈등 해결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를 중

www.kci.go.kr

보여준다. 그러기에 작품의 회귀 구조는 '회귀를 거듭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주인공 중심의 서사'가 아닌 '회귀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여러 인물과의 서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받아야 할 지점은 점차 드러나는 인물들의 다면성이 기존에 설정되었던 선악의 축을 절대적이지 못하게 흔든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1회차에서 선악의 축은 박무현의 탈출에 협조적인지 여부와 그에 겹쳐지는 집단의식(국적)으로 암시된다. 가장 대표적인 '선한 협력자' 집단에는 작중 박무현과 여러 차례 함께하는 백애영, 서지혁, 신해량이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엔지니어 가팀[20]의 보호를 위해 채용한 용병들이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해수면 위로 보내고, 같은 한국인인 박무현 또한 살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선한 모습은 특히 박무현과 용병들의 관계가 서사 전개의 주를 이루는 한편 대조적으로 무한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 1회차에서 두드러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 명의 전투 장면이 폭력적이라는 언급이 1회차에서부터 박무현의 시점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테러 속에 놓인 일반인의 공포 어린 시선과 무장한 적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측면에서 납득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후의 삶(회귀)'이 있다는 게 알려지기 전부터 박무현을 보호했기 때문에 용병 셋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은 이후의 회차에서도 이어지리라 기대되기 쉽다. 정리하자면 1회차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협력자'와 '무한교'의 집단 대립 구도를, 다시 말해 권선

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를 게일 캐리거의 '여성 영웅'으로 해석한다.

20) 태평양 해저 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물들의 직업군에서는 엔지니어팀, 해저 연구원, 채굴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엔지니어팀은 해저 기지 건설에 참여한 8개 국가(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가~아팀으로 구성되었다. 각 팀의 국적은 서술된 8개 국가의 순서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가팀의 팀장은 한국인인 신해량이다.

www.kci.go.kr

징악의 결말을 예상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박무현이 다시 백호동의 숙소에서 깨어난 2회차에서 그는 유금이를 포함한 세 명의 한국인 여성과 함께 연구센터로 향하게 된다. 이 회차에서 무한교는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면 큰 비중을 갖지 못하는데, 이 빈 악역의 자리에는 1회차에서 보이지 않던 '박무현을 포함한 한국인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동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박무현 등을 위협한 아서 굿맨, 수가 적은 탈출정을 놓고 살상사고까지 일으킨 여타 연구원들,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에 들어 찬 물을 빼서 탈출한다는 작전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등 2회차 회귀에는 무한교만이 절대적인 악역이라는 생각을 재고하게 만드는 인물들로 가득하다. 게다가 이 회차에서는 처음으로 무한교 신도 개인으로서 비중을 가진 은자디 카누가 등장한다. 그는 탈출 작전에 협력적이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과거 노예제가 없던 시절의 아프리카를 보는 것) 또한 합당성을 갖추었기에 절대적 악역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결국 엘리베이터에 탄 탈출 인원은 무한교 소속인 안나 가르시아의 손에 거의 몰살당하기 때문에 2회차는 여전히 한국인을 선함, 무한교를 악함으로 상정하는 구도를 유지한다. 그럼에도 이 회차는 절대악인 무한교를 해결하면 모든 테러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부수는 데 크게 일조한다.

그러한 예상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박무현이 다시 한국인 용병들과 함께하는 3회차 회귀이다. 이 회차에서는 주인공을 돕는다는 이유로 선하며 정당하다고 여겨지기 쉬운 한국인에 대해 박무현 시점의 회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한국인 인물에 의해 타국인 미성년자인 헨리가 구출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투마나코 오란가가 뉴질랜드인이라는 이유로 탈출정의 이용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등 '한국인인 주인공에게 협력하는 한국인'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1회

www.kci.go.kr

차에서 능력 있는 협력자로 기대되었던 용병팀은 3회차에서 무한교에 가담한 우에하라 스미레, 존 도우, 쯔쉬안을 향한 폭력을 남발한다.[21] 이로써 이 회차는 독자가 친근함과 신뢰를 쌓은 인물들의 도덕성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음을 각인시킨다. 게다가 이후 이어지는 5회차에서는 엔지니어 가팀인 정상현과 김재희가 처음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이 둘은 오히려 무한교에 박무현의 정보를 넘겨 주인공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로써 작중 '협력자'와 '악인'은 절대적으로 양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다양하게 분화한다. 타임 루프가 진행될수록 작품은 어떤 이가 살고 어떤 이가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상, 다시 말해 철저하게 구조화된 '살아남을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든다.

웹소설의 독자는 대리만족의 통쾌함을 원하면서도 주인공의 윤리를 고려하며 그에게 도덕적 제약을 걸곤 한다.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의 저항을 위해 웹소설의 주인공은 악인에 대해서도 먼저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피해를 누적한 후 복수에 나서는 전형성을 보인다.[22] 이를 통해 웹소설 서사의 구조화된 권선징악은 인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도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귀 구조는 이전 생을 통해 그 누적된 피해를 압축적으로 담아내 이후의 통쾌하고도 정당한 복수를 담아내기 적절하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현될수록 선역의 행동은 지지할만한 것, 악역의 행동

21) 대표적인 사례로, 무한교의 협력자로서 엔지니어 가팀의 인질 상태에 있던 엔지니어 라팀 쯔쉬안이 달아나자 서지혁은 망설임 없이 그를 쏜다.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렇게 발포했을 거냐는 물음에 대해 신해량이 부정하는 것을 들으며 박무현은 자신이 속한 한국인 집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 해저기지를 탈출하기 위해 같이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의지했으며, 서로를 살리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당신들의 목숨은 내게서 효율이나 필요에 의해 잴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단행본 7권 "엔지니어 라팀")와 같은 독백에서는 같은 한국인에게 느낀 충격과 회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2) 박수미, 「웹소설 주인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제95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222-224쪽.

www.kci.go.kr

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 된다. 하지만 결국 이는 서사적으로 '구성된' 정당성이자 도덕성이며, 결코 유일한 가치가 되지는 못하다는 점을 움베르토 에코는 '위안'의 개념을 통해 지적한다. 그는 대중을 독자로 한 상업 소설에서 그들이 기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위안'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바꾸지만 전체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개혁의 양상", "반복 속의 통일성, 습득된 의미들의 안정성에서 나오는 질서의 형식"을 띤다고 보았다.[23] 이를 통해 보면 웹소설의 전형적 서사는 권선징악의 미래를 담보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세계는 억지로 이분법으로 재단되어 그로써 더욱 모순과 불공정함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오히려 이러한 회귀 구조가 만들어내는 성격을 활용해 가시화된 정당성과 비가시화된 모순, 불공정함에 대해 성찰하기를 요청한다. 박무현의 1회차 회귀가 용병팀 위주의 '협력자'와 무한교라는 '악인'을 지극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나, 오히려 이후의 반복되는 회귀에서 양분된 세력 구도가 개인의 입체성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듯이 말이다. 박무현은 불가피하게 다양한 타인과 마주하는 상황에 처하고, 이로써 집단과 세력 구도의 도덕적 낙인에서 벗어난 갈등 해소의 방법을 모색한다. 그에게 있어 해저 기지 내의 인물들이 회귀가 거듭될수록 '같은 국적은 보호하지만 그 외는 신경 쓰지 않는 민족주의자', '위협적이지만 연민이 가는 악인',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소시민' 등으로 그 이미지가 다양해지듯이 말이다. 이는 결코 '협력자'가 사실은 악역이었으며, '악인'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정당화의 역전 상황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져 '마땅한 결말'로서 권선징악이나 생사의 갈림길 대신 작품은 인물의 입체성을 드러낸다. 이를 박무현이 심해

23)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101쪽.

www.kci.go.kr

를 탈출해 대한도에 도착한 이후 말하는 다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요. 금이 씨도 보고 싶고, 가영 씨도 보고 싶고, 지혁 씨도 보고 싶고, 해량 씨도 보고 싶고, 수정 씨도."
>
> 나는 해저기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마구잡이로 불러댔다. 거기엔 내 기준으로 착한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고, 내가 이 해저기지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안 만났을 사람들도 있었다.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악독한 사람들도 있었고, 짧은 이득에 정신이 팔려 남에게 해를 끼칠 결정을 하거나, 아무런 이득 없이도 선한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 "……스미레 씨나, ……망할 벤자민 놈도 보고 싶어요. 그놈은 연구원인데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쯔쉬안 씨도 제 마음엔 안들지만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단행본 15권 "해제(1)")

백애영의 도움으로 대한도로 무사히 도착한 박무현은 거기서 김재희와 함께 해변에 닿는다. 그곳에서 박무현은 이전 회귀 회차에서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아직 대한도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잠시 절망에 빠진다. 독자조차 탈출 인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뒤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연재분이 그들을 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또한 '예상'과 '위안'을 비튼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의 인용은 박무현이 '협력자'와 '악인' 모두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에하라 스미레와 벤자민, 쯔쉬안 모두 해저 기지 탈출 도중 박무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존재이다. 하지만 '다음 회차에서 그 사람이 다르게 해석(인식)될 가능성'을 체험한 후, 박무현

www.kci.go.kr

은 권선징악의 틀을 밖에서 이들의 미래를 소망한다. 팀을 빠져나와 기지에 몰래 숨긴 반려견과 죽음을 각오하거나(우에하라 스미레),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박무현을 마지막 순간 안나 가르시아의 총격으로부터 지켜주거나(벤자민), 혹은 테러에 가담하긴 했어도 과거 박무현과 함께 잠시나마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함께 담소를 나눴던(쯔쉬안) 이들은 그렇게 '마땅한 결말'보다 폭넓은 기억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소환된다.

이러한 양분화의 해체는 독자들이 '인물들을 (재)배치'하게 만들지 않고, 그 자신이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편'하기를 제안한다. '협력자'와 '악인'의 이미지는 하나의 의도된 분할점이자 이데올로기이며, 따라서 그 이면에 무수히 많은 타래의 관계망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편히 재단할 수 없는 세계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권선징악을 여러 방향으로 고찰하는 주인공의 탈출기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이타심(선의)과 연대'라는 가치의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탈출 이후의 후일담에서 이 지점이 또 한 번 강조되는데, 박무현을 도왔던 모든 한국인이 살고 모든 무한교의 수뇌부가 사망하는 결말은 웹소설의 전형적인 결말 자체를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중 주인공에게 큰 위기를 안겼던 정상현과 김재희, 적지 않은 수의 무한교 가담자, 그리고 무한교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6회차 회귀에서 박무현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켰던 엔지니어 다팀까지 살아있는 지점은 선악의 구도를 마지막까지 돌아보게 끔 만든다. "팀원들끼리는 꽤 아끼던 거 같은데 아마, 내가 엔지니어 다팀 직원이었다면 이 사람들도 나랑 같이 다니지 않았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거 같다."(단행본 16권 "회복")라는 박무현의 말과 같이, 누군가가 친숙하게 느끼는 선악과 정당성, 그에 따른 이타심과 연대는 때에 따라 박무현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서사의 마지막에 '복수' 대신 등장하는 '용서'는 마냥 선역으로서 인물이 보이

www.kci.go.kr

는 태도가 아니라 개인의 입체성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는 인물들 사이의 분할점을 인정하는 작품의 태도에 가까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서 웹소설의 장르관습에 해당하는 선악의 대립이 점진적으로 해체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특히 회귀 구조의 반복이라는 작품의 특이성을 통해 드러난다. 1회차가 전형적인 선악 구도를 보여주었다면, 작품은 다음 회차부터 선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인물과 아예 이분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인물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익숙해하는 권선징악의 서사에서 멀어진다. 이는 작품 속 사건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게 만들며 현실 인식의 안정적인 '위안'의 틀을 재고하게끔 한다. 다음 3장에서는 1인칭 주인공 박무현의 서술이 이 안정성의 해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의 입장에서 재난을 경험하게 만드는 지점을 분석할 것이다.

3. '일반인' 주인공의 1인칭 서술로 인한 '영웅'과의 거리

박무현은 작중 유일하게 현재진행형으로 회귀를 경험하는 인물로, 그의 회귀는 무한교가 해저 기지를 배경으로 시행한 대규모 회귀 실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공의 '후회'를 회귀의 배경이자 회귀 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24] 기존의 회귀물 관습과는 달리 박무현은 우연히, 원치 않는 회귀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생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회귀 서사와 박무현의 생존기는 필연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다. 해저 기지 침수는 박무현이 해저에 들어

24) 안상원, 앞의 글, 283쪽.

www.kci.go.kr

와 일주일도 안 된 주말의 아침에 갑작스럽게 벌어진다. 그동안 해저 기지의 구조를 익히지 못했음은 물론 친해진 사람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는 무장한 무한교 신도들과 엔지니어 나팀, 라팀 등 테러 가담자로부터 살아남아 해수면까지 올라가야 한다. 또 이렇게 회귀 이후에 활용할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웹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처럼 난관을 문제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처지에 있다. 그는 과거에 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었고, 병역 면제로 인해 총기를 사용해본 적이 없어 무한교와의 싸움에서 서툰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그의 전공인 치의학은 침수와 테러 상황에서 사망 선고 이외에는 그다지 쓰이지 못한다. 이렇게 박무현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의 반대편에 있는 일반인의 위치를 끝까지 유지한다.

회귀 이전에도, 도중에도 이러한 전형적이지 못한 주인공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독자로부터 외면받을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작품은 그러한 '능력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 즉 한국인 용병들(백애영, 서지혁, 신해량)을 주인공의 근처에 빈번히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존 능력과 전투 능력이 뛰어나며, 목표 의식(해저 기지 내 한국인의 생존)이 확실하고, 그것은 한국인 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이것들은 "확신과 결단, 자신감과 의욕, 성취감이 충만한 영웅적인 감정"이라는[25] 웹소설의 전형적 주인공이 갖는 특성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작품의 실제 주인공 박무현은 위의 영웅들이 무한교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역할을 많이 내비치며 일반인의 위치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대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1회차에서는 무한교와 대치하며 총을 쏴야 할 순간이 오

25) 박수미, 앞의 글, 2024, 220쪽.

www.kci.go.kr

자 박무현이 상당히 긴 인용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26] 또 용병들과 함께하는 3회차에서 나온 박무현의 섬망 증세 또한 일반인인 그가 회귀 중에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짐작하게 만든다. 이로써 작품은 일반인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재난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게끔 연출하며 영웅들을 통한 대리만족 또한 일부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혼자서는 결코 생존하지 못하는 박무현의 시선은 재난 상황 속 영웅과 일반인에서 대부분 후자일 독자들의 시선과 겹쳐지며 연민과 친근감으로써 긍정될 수 있다. 그러기에 1회차에서 박무현이 지식을 습득해 이후의 회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또한 영웅이 되어 대리만족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사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박무현은 2회차 회귀에서 그와 비슷한 일반인들과, 죽음 이전과 같이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로 탈출을 이어간다. 이때부터 작품은 '일반인'과 '영웅'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를 아래의 인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선한 행동들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도왔으면 좋겠다.
>
> 나와 유금이, 이지현이 숙소에 갇힌 김가영을 구하고, 나와 이지현과 김가영이 해양생물을 풀어주려는 유금이를 돕고, 김가영이 위기에 처한 우리 셋을 도우며, 우리가 이지현이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루어

26) "만약 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면?/밖에 누워있던 사람들처럼 무장인원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거라면?/나 때문에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라면?/(중략)/밤마다 저 사람들 시체가 내 꿈속에 나온다면?/날마다 총을 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며 울어야 한다면?"(단행본 3권 "전시회장") 해당 인용은 열 문장이 전부 줄바꿈으로 늘어져 총성으로 가득한 긴박한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다. 전형적인 주인공답지 않은 우유부단함이지만, 이와 같은 서술은 박무현이 대부분의 독자와 같은 일반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www.kci.go.kr

주려 애를 쓰고, 이 사람들이 나를 구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돈이나 폭력은 아무런 구원도 제시해 줄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럼 꿈속에서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채로 내 총에 맞아 죽었던 사람은 뭐지? 폭력에 익숙한 이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신해량이나 백애영이 꿈속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을 것이다. 아니면 저 굿맨이라는 남자든가.

자본과 강제력. 둘 중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이 엉망진창인 해저기지에서 살아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대가 없는 도움 때문이다. (단행본 4권 "러닝백")

위의 인용은 연구원인 김가영과 유금이, 그리고 엔지니어 가팀의 이지현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는 2회차에 나온 박무현의 독백이다. 용병들과 함께 했던 이전 회차와는 달리 2회차의 그는 '일반인' 여성 셋과 다니며 무한교가 아닌 여러 인물과 마주한다. 재난 상황을 틈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학살한 아서 굿맨, 별다른 이유 없이 박무현의 가방을 빼앗고자 한 카터와 벤야민 등을 겪으며 박무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은 측면에서 재난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다. 2회차의 연구센터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탈출하던 중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사고하며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약자가 우선시된다는 기본적인 탈출 지침부터 의문시하고, 앞서 박무현이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인 우선'이라는 편리한 방식은 당연히 통하지 않는다. 이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박무현이 주장하는 탈출 방식은 위의 인용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타심(선의)과 연대'라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통한다. 그는 해저 기지에서 오래 교류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차에서 용병들이 자신을 도왔고, 그

www.kci.go.kr

리고 2회차의 인원들 또한 서로 돕는다는 점을 토대로 들어 '선의의 순환'을 역설한다. 그러기에 '일반인' 중 한 사람으로서 박무현은 선악의 도덕적 잣대와 재난의 위급함을 명분 삼아 가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당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을 단칼에 가려내는 작업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기존 회귀 관습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영웅(주인공)' 중심의 플롯, 그리고 그로 인해 소실되는 현실의 성찰 지점을 정조준한 설정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영웅'이 인물보다도 작품의 구조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중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중 문학의 '영웅'은 사실상 그 자신과 경쟁적 세력들 사이의 이해관계 청산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영웅'은 또 하나의 '지배 형식'이 되어버린다.[27] 국적이나 계급 등 손쉬운 기준에 의한 사회의 분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화가 이미 많은 대중 서사에서 서사 진행의 틀이 되어버렸음이 이를 증명한다. 이를 고려할 때, 소설 속의 용병들은 분명 작품의 끝까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영웅들이다. 하지만 인물로서 그들의 매력과는 별개로, 구조적 '영웅'으로서 그들은 '한국인 우선'과 능력주의라는 명쾌한 도식으로 해저 기지를 탈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이에 반대하며 박무현은 스스로를 '영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아군이자 선인으로 받아들여졌기에 받을 수 있었던 관심과 도움에서 그 조건들을 소거하고 이를 다시 '일반인인 자신의 역량'으로서 외부로 순환시킨다. 즉, 작품의 구조로서 '영웅'이 사건과 갈등의 해결 방식을 단순화하여 독자에게 '위안'을 준다면, '일반인'은 그 해결 방식의 다양성을 탐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영웅'과 갈라진다.

27)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132쪽.

www.kci.go.kr

여기서 이 작품의 특이성이 드러나는데, 바로 박무현과 같이 일반인인 독자의 시선이 주인공과 동일시되다가도 이내 그와 다른 편에 서게끔 유도된다는 점이다. 박무현은 한국인 용병들의 도움을 받다가도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의 폭력성을 노출하는 관찰자이다. 그리고 2회차에 깨달은 대로 그는 행적과 사상이 그 목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며 엔지니어 가팀 뿐만 아니라 무한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 살신성인의 면모를 보인다. 기존에 웹소설 독자들이 익숙해져 왔던 선악의 잣대, 피아(彼我)의 식별, 가치 있음의 판단이 박무현의 1인칭 서술로써 허물어지면서 작품은 박무현에게 완전히 동조하는 것도, 가팀의 용병들이나 여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지양하게 만든다. 재난 상황에서 박무현이 보이는 무조건적인 살신성인의 태도도, '한국인 우선'이나 여타 '강대국 우선'이라는 관점, 그 밖의 여러 가치관도 무엇 하나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인 박무현이 작중 여러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점과 그러한 박무현의 시점조차도 독자의 그것과 완전히 합일되지 못한다는 점은 재난 상황을 보는 시각을 다면화한다. 박무현의 타임 루프는 지배 형식이자 구조로서 '영웅'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조차 '의견을 내는 일반인 중 한 명'이 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의도적 전략으로서 '주인공과의 거리'는 박무현을 단순히 성인(聖人)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박무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관의 인물들 곁에 독자를 세워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한시가 급한 침수 상황에서 무한교에 협력한 우에하라 스미레의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총으로 자신을 협박한 쯔쉬안을 살리고자 하는 등 박무현의 강박에 가까운 이타심은 이미 비평에서 언급된 바 있다. 김고운과 조형래는 그가 회귀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남들을 향한 선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자

www.kci.go.kr

면 박무현의 선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28] 이와 함께 "웹소설 시장에서 위기를 자초하는 주인공은 독자들의 응원을 받기 어렵"다는[29] 사실을 환기한다면, 앞의 지적은 박무현의 행적이 독자들에게 특정한 도덕적 교훈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때 독자와 박무현 사이의 거리는 독자가 전형적인 주인공(회귀를 거듭하며 유능해지는 회귀자)에게 거는 '위안', 그리고 그가 현실적인 일반인으로서 생존을 위해 행동하리라는 '위안'을 동시에 배반한다. 이로써 작품은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과 '선악으로 양분될 수 없는 타인들'의 곁에 두어 그들의 평가자가 아닌 '함께 지금-여기의 문제를 경험하는 자', 즉 '일반인'로서 참여하게끔 이끈다. 바로 그 속에서 이타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까지 연대가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숙고될 수 있다.

작중 인물들의 사이에 놓이는 감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박무현과 김재희다. 엔지니어 가팀 소속이자 무한교의 신도인 김재희는 박무현과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는 한편 '선의의 순환'이라는 박무현의 믿음에 관해서는 그와 평행선 위에 있다. 김재희는 과거 지뢰를 잘못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의족 생활을 하였고, 잠시 휠체어로 생활하던 중 형과 함께 불난 영화관에 갇히는 회귀를 경험했다. 그는 30번이 넘는 회귀 끝에 결국 형을 연기 속에서 잃고 그 자신은 계단에서 뛰어내려 손가락을 잃은 채 회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자살 충동, 무속, 종교에 빠져 살면서 무한교에 입단하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 해저 기지에 들어오게 된다. 5회차부터 박무현이 회귀를 한다는 사실이 무한교에 널리 알려지며 그는

28) 김고운·조형래, 「모두를 위한 선의, 기만과 위선 사이」, 『더스쿠프』 제613호, 더스쿠프, 2024, 65쪽.
29) 박수미, 앞의 글, 2024, 217쪽.

www.kci.go.kr

무한교의 구원자 취급을 받는데, 이때 김재희는 박무현의 남들을 향한 이타심을 시험한다. 타인을 위한 배려는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이 김재희의 주된 생각이다. 특히 두 회귀자가 함께 한 8회차의 탈출은 이타심에 대한 양극단의 사고를 대조시킨다.

>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만 살리는 게 낫다는 걸 나중에는 아시게 될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게 편하다는 것도요. 구원자를 바라는 저희의 심정도 나중에는 알게 되시겠죠."
>
> 김재희가 날 물끄러미 보면서 말했다.
>
> "남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으시겠죠.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어요. 도와줘도 상대는 제대로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면서 자기 살기 바쁘다고 도망치겠죠. 지금이야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들겠지만 나중에는 귀찮다는 생각밖에 안 들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낭비한 시간과 기회도 아까워질 거예요."(단행본 12권 "타지 않는 것")

8회차에 나온 위의 인용은 해저 기지에 불이 나자 박무현이 무한교의 인질들과 함께 탈출하려는 것을 김재희가 저지하면서 나온 대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회귀에서 얻은 PTSD에서 벗어나지 못해 타인을 불신하고 쉽게 희생시킨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듯이 인용문 이후 대한도에 도착한 인원은 다음 회차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듣고서 그는 박무현의 생존에 필요한 신해량을 살리지 말라고 하거나, 바닷속에서 상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함께 탈출하던 리코를 해하여 피를 낸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기주

www.kci.go.kr

의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웹소설 회귀물이 전형적으로 갖는 성공/성장 서사의 이면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귀 구조는 '실패해도 되는 전생'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담보하며, 이때 이 장치는 자기 자신만이 미래의 본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기계발담론'과 맞닿는다.[30] 해저 기지 침수 사태에서의 성공을 '박무현의 생존'으로 볼 때, 그를 위해 타인들은 선악(善惡), 피아(彼我), 가치의 유무를 기준으로 쉽게 배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을 매개한다면 김재희의 발언은 이전 회차들에서 미성년자 외국인인 헨리, 홀로 방에 갇힌 김가영 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무한교의 협력자들에게도 살신성인의 자세를 내비쳤던 박무현의 행보를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박무현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는 독자에게도 다가와 그들에게 익숙할 선악, 피아, 가치의 잣대에 관해 질문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

8회차에서 극렬하게 나타난 두 사람의 대조는 박무현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는 9회차에서 가장 주인공의 태도를 시험한다. 이전에 박무현에게 위해를 가한 이들과는 달리, 그의 손가락을 자른 제니퍼 스미스는 '일반인' 박무현이 고른 선의라는 방식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고통으로 정신을 잃은 박무현은 뇌 내의 김재희가 "제가 말했죠?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환각을 경험한다. "구원자님이 싸워야 하는 건 불신과 이기심이에요. 우리 무한교 신도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건 평생 인간의

30) 안상원, 앞의 글, 294-296쪽. 이 글에서 '자기계발담론'의 예시로 나온 세 작품은 모두 회귀자가 회귀 사실을 타인에게 밝히지 않았다. 회귀자가 그로써 미래가 바뀌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같은 글, 296쪽.) 반면 박무현은 3회차 회귀의 시작부터 해저 기지 내 전체 공지로 이전 회차의 본인이 알게 된 상황(탈출정의 고장, 무한교의 테러 등)을 공유한다. 이는 박무현이 회귀자(구원자)라는 사실을 무한교가 눈치채고, 5회차에서 박무현을 건 인질극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설정은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가 애초에 '자기계발', 혹은 주인공 중심의 성공/성장 서사를 지향하지 않음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www.kci.go.kr

마음 속에서 떠돌 거예요."(단행본 14권 "부상")라며 그는 본인의 과거를 압축하고, 박무현의 미래를 암시한다. 이러한 환각은 사실상 박무현의 내면에 김재희의 조언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들어와 있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환각 이후 깨어난 박무현은 스미스의 손가락을 자르는 복수를 고려했다고 털어놓는다. 이내 그는 그러지 않겠다며 제니퍼 스미스를 용서하지만, 이전의 회귀들에서 성인(聖人)에 가까울 정도로 고집스러워 보였던 그가 복수를 입에 담은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박무현이 다른 인물들의 이해관계 중심적인 태도를 조금씩 바꾸었듯이, 그 또한 살신성인만을 밀고 가지 않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았다는 점이 이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사(卽死)한 사례를 제외하고 작중 박무현이 타인에 의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는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하고, 그 부위가 치과의사인 주인공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장면 직전의 김재희의 환각이 보여주듯이, 손가락 손상은 이타심에 대한 지향과 회의라는 두 입장의 차이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며 그 극점 사이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상상하게끔 유도한다. 절대적으로 전자나 후자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김재희의 환각이 결국 박무현의 내면에 존재하는 타인에 대한 회의이듯이 말이다. '영웅이 손쉽게 해결해주는 사회의 문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박무현과 김재희의 사이에서 늘어가는 의심과 고민들이다. 능력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영웅이 아닌 '일반인' 박무현의 시선은 이렇게 '이타심과 연대'라는 주제의식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교훈적으로만 전달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장을 열어 그 시공의 추체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로써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회귀 구조의 '영웅' 중심 서사를 의문시하고 그 반대쪽에

www.kci.go.kr

또 다른 살신성인적 '영웅'을 세우기를 지양하며 지금-여기의 문제를 고민할 책임을 상기시킨다.

이번 장에서는 박무현의 1인칭 시점이 전형적인 회귀 관습의 '영웅'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회귀 서사는 타인에 비해 능력적으로 우월한 주인공을 갖기에 '사건이 초월적 존재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위안'을 주기 적절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를 지양하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회귀가 거듭됨에 따라 '영웅'의 존재와 대비되는 '일반인'을 대거 등장시킨다. 특히 1인칭 주인공인 박무현 또한 '일반인' 중 한 명으로서 나타나 무조건적 이타심이 하나의 방식이 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다른 인물들의 이기적이며 능력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박무현의 살신성인 모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주어진 갈등과 문제를 고민하는 '일반인'의 자리를 열며 작품은 '위안' 대신 참여와 책임을 남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참여와 책임의 문제가 결말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식을 회귀 구조의 특성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4. 낙관주의적 성공 서사를 경계하는 재난-밖의-재난

이 소설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맡은 단체는 단연 무한교이다. 애초에 해저 기지 침수가 그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매 회차마다 박무현의 탈출을 막는 것도 그들의 테러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무현을 구원자로 추대한 후 매번 그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작품 내의 비중에 비해 그들의 실제 세력과 구체적인 교리, 교주의 정체, 그리고 박무현이

www.kci.go.kr

겪는 회귀 구조와의 뚜렷한 관계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작품이 박무현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애초에 독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무현 자체가 무한교의 위험성 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신도들의 입교 목적-죽은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나 사적 복수 등-과는 별개로 무한교라는 세력, 그리고 구원자 후보(이전에 회귀를 경험한 자들)를 포함한 수뇌부는 작중 명실상부한 악의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정체는 1회차에서부터 작품의 가장 큰 서사 장치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박무현이 대한도에 도착하고 난 이후의 후일담에서도 그 장치가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작품은 일부러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

이렇듯 무한교의 맥거핀적 활용은 일견 작품의 개연성을 저해하는 듯하나, 앞선 장들에서 나온 '위안의 장치'의 변용과 함께 볼 때 이 또한 작품의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 서사의 중앙에 자리한 무한교라는 공백은 일부러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한 자리로 귀결되는 완전한 결말'을 방지한다. 박무현의 1인칭 서술로 전달할 수 있는 서사는 끝이 났으나 그 세계는 완결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심는 것이다. 실제로 외전인 단행본 17권에서는 신해량과 서지혁에 의해 무한교의 수뇌부가 전멸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무한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박무현의 회귀로 인해 멸종되었을 백상아리 종(種)이[31] 여전히 남아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다. 이는 박무현이 중심인물이 아니게 된 후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21세기 후반의 시공은 진행형이라는 감각을 제공한다. 작품은 침수된 해저 기지에서 탈

31) 무한교의 구원자 후보이자 회귀 경험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휘버에 의하면 무한교에 의한 회귀 실험은 한 생물의 멸종을 대가로 이뤄진다. 박무현의 경우 백상아리가 희생양으로서 멸종되었다고 본편에서 언급되었으나, 외전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금 무한교의 회귀 의식은 미궁으로 빠진다.

www.kci.go.kr

출하고 무한교 세력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사회는 이어지고 있으며, 이전부터 계속되던 갈등이 결말과 함께 기적처럼 사라질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렇듯 서사의 끝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은 '이타심과 연대'라는 주제의식, 그리고 작중 배경에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낙관주의적 태도 비판과 닿아있다. 관련하여 다음 인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입사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듣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태평양 바다에는 물고기들보다 폐플라스틱이 더 많습니다. 플라스틱이 한 움큼 들어 있는 데다 방사능에 오염된 북태평양 바닷물을 마실 바에야 차라리 동량의 세제를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다와 연관된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하지만 해저에 살거나 섬에 사는데 어쩌겠습니까. 온몸으로 바다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지요."
>
> 마이클이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
> "바다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볕이 잘 드는 날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게 흔한 일인 데다 이 조그마한 섬에도 시도 때도 없이 폭풍우와 해일, 허리케인이 들이닥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괜찮은 방공호에 들어가 거기서 일생을 마치거나, 다른 유토피아를 찾는 것뿐입니다. 과거는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일 겁니다. 그 어디로 가든 간에."(단행본 14권 "분란(1)")

위의 대사는 무한교의 신도로서 해저 기지에 잠입한 엔지니어 총괄 마이클 로아커의 발언이다. 그는 마지막 9회차 회귀에서 박무현과 우연히 마주치자 무한교가 해저 기지를 테러한 이유를 설명한다. 로아커에 의하면 무한교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위해 회귀 실험을 이어왔고, 작중 시

www.kci.go.kr

점에서 그 실험 장소로 꼽힌 것이 바로 해저 기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그중 다수가 죽는 것이 그들이 발견한 회귀의 조건인데, 해저 기지는 실제로 그것이 달성되기 쉬운 곳이었다. 그 대량의 희생을 내면서 로아커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이 현재의 환경오염이라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이는 언뜻 보면 개인 신도로서 그의 목표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후의 15권에서 무한교의 또 다른 구원자 후보인 자말 그린은 "무한교 신도들은 전 인류가 소멸할 정도의 재앙이 닥쳤을 때 과거로 가길 원한"다고 말하고, 재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느냐는 박무현의 질문에 대해 "이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구 뛰어가고 있"다고(단행본 15권 "구출") 답한다. 이는 무한교의 궁극적 목표에서 말하는 "전 인류가 소멸할 정도의 재앙"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작중 꾸준히 언급되는 배경인 환경오염임을 암시한다.

한편 위와 같이 14권에서 나온 마이클 로아커의 상당히 긴 설명은 전체 작품 17권 중 거의 유일하게 무한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는 환경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행한 회귀 실험에서 해저 기지가 불평등과 차별, 약육강식, 그리고 경계 짓기의 장으로서 만들어진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각 엔지니어 팀의 팀장을 부도덕한 인물로 배정하고 그를 위해 미리 사전 조사에 나서거나, 그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인물을 기지 밖으로 내쫓는 등 로아커는 해저 기지의 인원 배치 자체가 무한교에 의한 것임을 털어놓는다. 무한교의 연구에 따르면 회귀는 다수가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그들은 강자와 약자가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적인 실험장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다. 무한교에 대한 설명이 작품 본편의 상당한 후반부에 나오는 것과 함께 작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그들의 해결책(회귀)이 터무니없음은 더욱 강조된다. 박무현이 반복되는 회귀 속에서

www.kci.go.kr

체감한 인종차별, 국적 차별, 성차별, 서양과 동양의 사이의 불평등이 그의 해저 기지 탈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회귀는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오히려 재난 상황을 악화하는 요인이자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박무현의 시점은 특히 한국인들과 많은 회차를 함께하며 해저 기지에서 한국인이 받아온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항해 형성된 타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전달하는 등 이 재난 해결책의 허술함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박무현이 경험한 반복적인 회귀는 환경오염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인물들의 연대를 막는 무한교의 행태를 폭로한다. 하지만 이때 회귀 구조는 '재난을 일으킨 무한교의 내막과 그 결말'을 앎으로써 봉합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절대악으로 설정되었던 거대 세력 무한교가 샅샅이 파헤쳐지지 않고, 오히려 끝에 가서 모습을 감추는 형태는 웹소설이 독자들에게 주는 '위안'을 저해한다. 웹소설에서 중요시되는 권선징악의 주제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 소설은 다소 과장되고 불필요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독자들에게 대상의 정체, 결말의 방향, 예상 가능한 반전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작중 세계와 현실의 법칙을 공고히 한다.[32] 악역에 대한 정체를 점차 제공하고, 그가 어떻게 파멸할지에 대한 암시를 당연하다는 듯이 남기며 대중 소설은 독자의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다. 즉, 악역에 대한 묘사와 정보 전달은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결말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것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인상과 권선징악의 '위안'을 완성한다. 그러나 박무현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본편은 결국 무한교의 내밀한 정체나 회귀 의식의 성공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다만 박무현이 생존자들과 함께 해저 기지를 나가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로써 작품은 서사의 끝이 곧 해저

32)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46-47쪽.

www.kci.go.kr

기지 침수와 환경오염 등 재난의 봉합이라는 착각 대신, 박무현이 체감한 '재난 상황을 악화했던 차별과 불평등의 연속'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서 무한교에 의한 해저 기지 침수가 재난의 표면적 시작점이라면, 해저 기지가 설립된 원인인 환경오염은 그 시작과 종결 시기를 알 수 없는 배경으로서의 재난이다. 즉, 소설은 침수와 테러라는 재난을 넘어서도 그 밖에 또 재난이 자리하고 있는 재난-밖의-재난 구조를 취한다. 무한교의 테러에서 벗어나는 도중에도 많은 인물이 환경오염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 점은 작품의 실질적 의도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특이점은 재난에 대비한 해저 개발과 해저 기지 자체도 거의 모든 단행본마다 회의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박무현이 "이미 지구의 자원과 생명들은 거진 끝이 난 상태에 가깝다."(단행본 1권 "계약서를 쓸 때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보아라")라고 비관하며 해저 기지를 소개하는 작품의 극초반부는 이미 작중 현실에 디스토피아적 색채가 가득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회귀를 거듭할수록 박무현은 해저 기지 내의 불평등함과 차별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단순 비관론을 넘어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독자가 도달하는 서사의 끝은 무한교와 해저 기지에서 빠져나와 일차적 재난에서 벗어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화이다. 사실상 이 작품 속에서 환경오염은 일종의 도구로서 여러 재난 속에서 이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 지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와 식량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해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주개발과 비슷하게 논의되었지만, 해

www.kci.go.kr

> 저개발의 경우에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은 해양오염을 부른다며 우주개발 쪽 의견에 힘이 더 실렸다.
>
> 나중에야 우주개발은 선진국들이 가진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들로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구축할 수 있기에 일정 선 아래의 나머지 국가들을 배척하는 방편들 중 하나였다는 게 밝혀졌지만.(단행본 2권 "인과(2)")
>
> (나) 쯔쉬안의 행동들이 개인의 원한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자마자, 쯔쉬안은 이 모든 조치들이 해저기지의 평화와 대한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중략)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채굴에 드는 실제 비용과 8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불평등한 자원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던 상대는 내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곧 입을 다물었다.(단행본 6권 "잠수정 포트(1)")
>
> (다) "너넬 쫓아내 달라고 일본이 얼마나 우리에게 로비를 많이 하는지 알아? 그 다음 순서로는 중국이야. 제일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해저기지에서 꺼지라고 하면 돼. (중략) 그럼 아시안들은 완전히 해저기지에서 사라지는 거지. 나머지 국가들이 사이좋게 자원을 갈라먹기 하면 돼."(단행본 14권 "부상")

위의 인용들은 작중 배경인 21세기 후반의 환경오염과 그에 대응한 방식이 불러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용 (가)는 해저개발 이전에 있었던 우주개발의 실체를 드러낸다. 더 이상 우주개발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자 인류는 해저개발로 눈길을 돌리는데, 박무현은 이러한 우주개발을 두고 일부 선진국들의 이기적 독점 행위로 지적한다. 한편 이전 세대의 우주개발은 현재의 해양개발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데, 인용 (나)와 인용 (다)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차별이 바로 이를 가리키고 있다. 인용

www.kci.go.kr

(나)에서 알 수 있듯이 회귀 3회차에서 박무현을 협박한 쯔쉬안은 해저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테러 가담의 이유로 든다. 또한 단행본 14권에서 해저 기지는 무한교에 의해 조작된 실험장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은 온전히 무한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같은 권에서 마이클 로아커와 만나기 이전에 나오는 인용 (다)는 결코 무한교만이 이 일에 책임을 갖지는 않음을 명백히 한다. 엔지니어 마팀의 팀장 제니퍼 스미스는 백애영의 총에 맞은 후 아시안들을 욕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다. 무한교 신자가 아닌 그는 자신들이 다른 엔지니어 팀의 인력을 빼낼 것을 지시받았음을 언급하며 해저 기지에서 아시안을 쫓아내려 한 계획을 털어놓는다. 실제로 전 회차의 회귀에서 엔지니어 가팀의 팀장인 신해량은 본인이 인력 유출 목적의 이민 권유를 수차례 받았으며, 그가 합류하기 전 엔지니어 가팀은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인용 (다)에서 확인되는 국가 차원의 우선권 선점과 배타적 태도는 우주개발에 관해 언급되었던 '일부 선진국들의 이기적 독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렇기에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이클 로아커의 설명은 무한교가 재난 상황을 악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서사 종결의 중심지로 놓는 데는 실패한다. 무한교를 해치운다고 해서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선진국들의 차별의식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와 비교할 때 후자의 재난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퇴치 대상이 아니기에 섣불리 그것이 해결된 미래를 상상하며 닫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환경오염에 대비해 지어진 해저 기지, 그리고 또 다른 대비책(회귀)을 위한 무한교의 테러는 모두 낙관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뿐, 문제의 본질과 역사적 연속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범이 된다. 관련하여 테리 이글턴은 낙관주의적인 희망이 현재를 진보적 미래를 향

www.kci.go.kr

한 디딤돌로 가치절하 한다는 점을 들어 그것을 경계할 것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현재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기대'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감이 존재해야 하지만, 낙관주의적 희망은 과거를 계승하며 현재를 성찰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없앤다.[33] 이를 통해 볼 때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서 해저 기지와 무한교는 특유의 낙관주의적 희망으로써 환경오염이라는 현재의 재난을 깊게 반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술 낙관주의적 미래'와 '과거 회귀'는 결코 그로써 생겨나거나 악화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일견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는 이 둘은 사실상 긴밀한 공모관계에 놓이며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해저 기지 침수라는 사실이 씻은 듯이 사라진 낙관적 결말은 유보될 수밖에 없으며, 작품의 토대를 이룬 재난은 끝난 듯 계속된다. 이러한 서사적 전략은 우상향하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부순 채 작품 속 현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끔 한다.

본편 마지막인 단행본 16권에서는 해저 기지에서 일어난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는 여러 국가의 행보가 나타나며, 외전인 17권에서는 본편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담보하지 않은 채 대서양 해저 기지가 완공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건의 미완결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점이 바로 박무현이 경험한 회귀가 어째서 다른 회귀자의 그것과는 다른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회귀자는 타임 루프에서 벗어날 때 그가 경험한 여러 회귀 회차 중 무작위로 뽑힌 한 회차를 현재로 얻었다. 그러나 박무현은 각 회차에서 해수면으로 보내는 데 성공한 이들을 살린 채 본인도 생존한 가장 마지막의 9회차 회귀를 끝으로 하여 정상적인 시간선으로 돌아온다.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기

33) 테리 이글턴, 『낙관하지 않는 희망』, 김성균 역, 우물이있는집, 2016, 71쪽.

www.kci.go.kr

에 작품이 끝난 뒤에도 서사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작품 밖의 관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이 악영향을 보여주는 환경오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박무현의 시점을 중심으로 동화와 이탈을 반복하던 독자는 결말 이후에도 불투명한 시야를 갖고 재난의 연속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로써 '이타심과 연대'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에 대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차별과 불평등의 인지가 곧 연대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특히 작품의 연재 시점이 코로나19의 즉각적 충격이 다소 빠져나가고 포스트 팬데믹의 향로를 고민하던 때였기 때문에 더욱 독자에게 와닿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부각된 이 시기는 그야말로 "재난이 자연적 사건일 뿐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34]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재난이 어디에서 혹은 무엇에서 비롯되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의 의문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은 보다 당대적 의미를 갖는다. 작품은 차라리 그 전개와 지난(至難)한 해결법에 독자를 개입시켜 작중 문제인 환경오염을 마치 그들이 처한 지금-여기의 문제처럼 고민해볼 것을 요청한다. 작중 환경오염이 여러 불평등과 차별을 배경으로 가지며 또 다른 재난인 해저 기지 침수(무한교의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었듯이, 당대의 팬데믹은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고 또 그것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는 악의 순환을 보여주었다. 이 지점에서 주인공 측의 낙관주의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결말은 독자에게 건넬 '위안'의 이데올로기를 부수며, 그 대신 지금-여기와의 연루를 이끌어낸다. 이렇듯 '이타심과 연대'를 절대적 도덕이자 교훈이 아닌, 여러 상황 속의 의문과 고민의 형태로 남

34)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장상미 역, 동녘, 2020, 282쪽.

www.kci.go.kr

긴다는 점에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대중 문학이 가진 '독자와의 밀접성'이라는 특징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단지 '위안'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증명한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나타난 회귀 구조가 그 전형성을 비틀어 독자로 하여금 회귀물 수용의 방식을 고려하게 만든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의 반복되는 회귀 구조는 회귀 서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뚜렷한 선악 구도', '능력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 '성공 이외를 보여주지 않는 닫힌 결말'을 의도적으로 변형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재배치는 웹소설이 가진 독자와의 밀접한 관계 덕분에 가능했다. 웹소설은 그리 오랜 시간 발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와의 쌍방 소통을 특성으로 하며 '익숙한 관습/서사 전형/클리셰'를 단단히 구축해왔다. 이는 동시대적이며 쌍방향적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의 기능에 집중되어 주어진 문제와 갈등을 간략화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또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위안의 장치'는 웹소설을 대중 문학으로 해석할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된다. 그는 대중 문학이 그 독자인 대중에게 '위안'을 주어야 하기에 현실 사회와 연관된 사회적 문제를 작품 속에 넣으면서도, 그 해결 방법으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들만 제시함을 비판하였다. 선악의 이분화와 권선징악, 그 선함을 인정받은 초월적 '영웅'의 등장, 그로 인한 서사의 봉합은 사회적 모순과 불공정함을 악화하거나 은폐하는

www.kci.go.kr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는 특히 작품에서 일어나는 '예상 가능하며 손쉬운 해결'이 작품 안의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회귀 서사에서 자주 보이는 '위안'의 전형을 따라가는 듯하다가 변화구를 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먼저 이 작품은 선악의 이분법을 회귀 이전부터 밝히며 회귀가 시작되고 나서의 서사 방향을 예상하게끔 만든다. 하지만 오히려 회귀가 거듭될수록 작품은 선악의 구분이 유동적임을 분명히 하고, 결국 권선징악의 결말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분법의 해체는 인물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행위의 이유와 나름의 정당성, 그리고 각자가 만든 복잡한 관계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이 가운데 전형적인 '영웅'이 아닌 주인공의 1인칭 시점은 독자의 시선과 겹쳐지고 엇갈리기를 반복하며 주인공 또한 이 작품의 한 인물일 뿐 절대적인 잣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든 갈등을 손쉽게 해결하는 '영웅'은 작품의 초반부에만 존재하고, 이후부터 주인공은 그 자신을 포함한 복수의 가치관과 함께 등장한다. 그의 시선은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오로지 지속적인 교류와 중재만이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품은 지금-여기의 재난을 고민하는 또 한 명의 '일반인'이 되기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결말부에서 이 작품은 재난-밖의-재난이라는 구조를 통해 회귀를 통한 단발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박무현의 시점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귀에서는 특히 해저 기지 내의 차별과 불평등이 비판되는데, 해저 개발과 무한교의 테러는 전부 이 문제를 지속·악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환경오염에 대해 낙관주의로 임한 것은 무한교만이 아니며 사실상 우주개발, 해저개발 등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차별

www.kci.go.kr

과 불평등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음이 몇 번이나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교만 해치우면 해결될 것 같았던 작품의 갈등은 갈수록 타임 루프 밖의 연속적인 시공과 연결되며, 결국 결말 이후에도 사건 봉합의 '위안'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품은 '이타심과 연대'의 가치가 논의될 수 있는 텍스트 공간을 여는데, 작품의 주제의식이 전형적 회귀 구조의 변형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웹소설의 특성인 '독자와의 밀접성'을 잘 활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를 회귀물 장르관습의 변형으로 분석하는 이 글에서 초점은 이것이 '웹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은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웹소설의 특성을 잘 살려 그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 맞춰졌다. 웹소설 회귀물에서 어느 정도 전형성이 축적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한계이면서도 하나의 기준이자 동시에 변형의 토대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그 특성을 비틀어 새로운 구조나 새로운 주제의식에 도전한 웹소설이 꾸준히 등장해왔고, 이는 역시 독자와의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밀접성과 쌍방향성의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에서 말한 웹소설의 '전형성'이 에코의 '위안의 장치'를 가리킨다면, 이는 얼마든지 '전형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하거나 그 바깥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분석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웹소설 영역의 광대함과 연구를 위한 세밀한 구조화의 어려움으로 이 글에서는 아쉬움을 담아 '전형성'이란 범박한 단어를 사용했으나, 그것이 장르 외연 확장을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논의되는 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만큼 웹소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으며 동시대성을 보여주는 문학의 큰 축으로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연산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1-17권, 네이버시리즈, 2023-2024.(문피아 최초 게재 기준 2021.5.20.-2024.03.22.)

2. 논문과 단행본

권경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신계급주의와 서사 특징 : 책빙의물과 회귀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84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09-140쪽.

김고운·조형래, 「모두를 위한 선의, 기만과 위선 사이」, 『더스쿠프』 제613호, 더스쿠프, 2024, 64-65쪽.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60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4, 45-61쪽.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제4권 2호, 미래학회, 2019, 155-185쪽.

박수미, 「웹소설 서사의 파격성과 보수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35-60쪽.

_____, 「웹소설 주인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제95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199-230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엄채민,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자기 재서사화 과정과 자기 구원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정윤영,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시공간성 연구 : 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www.kci.go.kr

453-487쪽.
안토니오 그람시, 『대중 문학론』, 박상진 역, 책세상, 2025.
움베르토 에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장상미 역, 동녘, 2020.
테리 이글턴, 『낙관하지 않는 희망』, 김성균 역, 우물이있는집, 2016.

3. 기타자료

〈한국 SF어워드 2022 - 웹소설 부문 수상작 및 심사평〉, 『SF어워드』, 2022.10.05., https://sfaward.kr/77. (접속일: 2026.08.09.)

www.kci.go.kr

Abstract

Subverting the ‘Devices of Consolation’ - The Regression Structure in the Web Novel *Be a Light in the Dark Sea*

Kim, Yoon-Hee(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on structure of the web novel *Be a Light in the Dark Sea* through Umberto Eco’s concept of the ‘devices of consol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how the transformation of genre conventions in regression fiction shapes readers’ reception of the work’s central themes of altruism and solidarity. Over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development, regression fiction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ecognisable conventions, including a clear dichotomy between good and evil, a capable and appealing protagonist, and a closed ending in which success is the only possible outcome. While these conventions reflect the positive dimensions of contemporaneity and interactivity, having emerged through close communication between web novels and their readers, they also risk reducing narrative experience to vicarious satisfaction, thereby obscuring the contradictions and injustices embedded within the social realities they depict. In particular, Eco’s discussion of the ‘consolatory’ function of popular literature draws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its propose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may instead reinforce contradictions and injustices through devices such as a binary opposition between good and evil and the intervention of a heroic figure.

Be a Light in the Dark Sea, by contrast, initially adopts these conventions to offer readers the familiarity of a recognisable genre narrative, before gradually departing from them and prompting readers to question their consolatory function. First, by dismantling the clear moral opposition between its characters, the novel replaces an absolute moral standard for judging them with a complex

www.kci.go.kr

configuration of competing interes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 the centre of this configuration is a protagonist who remains an 'ordinary person' throughout the narrative. His perspective prevents readers from becoming confined to the viewpoint of a single character and instead encourages them to move between the perspectives of different characters, prompting reflection o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in the midst of disaster. Finally, the post-disaster narrative, which refuses to declare the disaster over even after all instances of regression have come to an end, challenges the assumption that a single, decisive act of regression can resolve and contain the events in question. Instead, readers are encouraged to approach th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foregrounded in the novel as issues of the here and now, connecting the disasters and thematic concerns represented within the text to those of the world beyond it.

By strategically transforming genre conventions in response to the distinctive relationship between web novels and their readers, *Be a Light in the Dark Sea* connects this formal transformation to the values of altruism and solidarity. Its significance therefore lies not only in offering an alternative to the self-absorbed and individualistic tendencies often associated with regression narratives, but also in demonstrating another possibility inherent in the web novel as a literary form. Through an analysis of this process, this study seeks to broaden the scope of scholarship on web novels.

(Keywords: Web Novel, *Be a Light in the Dark Sea*, Regression Narratives, Time Loop, 'Devices of Consolation', Umberto Eco, Popular Literature, Genre Conventions)

논문투고일 : 2026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